

-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,
-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전이위험, 자본의 중복이용 등 개별업권법으로 미처 감독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(보충적 규제)합니다.

- * ① 자본의 중복 이용: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외부자금 수혈 없이 가공의 자본을 창출
- ② 전이 위험: 계열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,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위험

② 국제사회도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인식하고, 그룹리스크에 대한 추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EU, 日,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도 국제기준에 따라* 그룹차원의 감독(group-wide supervision)을 도입하여 실시중이며,

* Joint Forum(2012)의 「금융그룹감독원칙」에 따라 금융그룹감독 제도 입법화

- IMF는 우리나라에 '14년에 이어 '20년에도 금융부문 평가(FSAP)에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공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합당한 감독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

③ 이미, 지난 2년간 모범규준으로 6개 금융그룹에 대하여 그룹위험평가·내부통제·공시 등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오고 있어 입법에 따른 추가적 규제(준수)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p> <p>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</p> <p>prfsc@korea.kr</p>	 <p>질병관리본부 콜센터</p>	
--	---	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